

사례분석으로 본 프라이버시의 상황논리

Specifics Aspects of Privacy Based on Case Studies

김 순 경*

Kim, Soon Kyung

김 종 인**

Kim, Zong In

Abstract

It is said that primary territories such as homes are excellent examples of how we use territories to portray ourselves to others. The homes often display openly the personality and values of its occupants. At the same time, as far as childrens' privacy in the household environment is concerned, the range of privacy options generally increases from adolescence on, because there is more freedom from parents' supervision at this age period. Children are subject to perpetual intrusion because they are defined as dependents. As long as they continue in this role, they are viewed as, at best, semi-autonomous.

In this paper, the authors carried out and analyzed some cases specifically to see the statistical data reported previously more intensivel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ing ;

- 1) Kids who have bed-rooms of their own(exclusively) seems to be encouraged to invite their friends in more openly and freely than those who share the same bed-room.
- 2) Social interaction among members of family seems to be carried out more frequently and closely in the extended family than in the conjugal family.

* 정희원, 계명대 강사

** 자문위원, 계명대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1. 서 론

본 논문은 전고¹⁾에서 보고한 도시주거 자녀실에서의 프라이버시 행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법의 하나로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소개 하는 것이다.

이는 비록 자녀실에서의 프라이버시 행태를 통계처리를 통해 그 대체적인 성향을 파악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비교문화론적 시각에서나 사회계층(또는 집단)간 비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므로, 프라이버시 개념을 종합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는 프라이버시의 상황적 속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사는 1992년 8월-12월에 걸쳐 부정기적으로 실제 조사대상(청소년 및 주부 14예)의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은 총 조사 사례 15예 가운데 9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 조사 대상당 면접 소요시간은 약 2시간 정도씩 이었다.

2. 조사대상의 성격

조사대상의 사회적인 계층은 중류(중상, 중중, 중하)에 속하며, 가족구조면에서는 가족수가 4~9명이고, 가족유형은 아홉 예중 두 예는 3대의 확대가족이며, 일곱 예는 2대의 핵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환경면에서는 방 수가 3개~4개, 평수는 단독주택 43평~63평, 아파트 26평형~45평형이다.<표1 참조>

<표 1> 사례분석 조사대상의 성격

사 예 번호	공유여부		실 이 용 자	비 고
	독방	공유		
1	○		여고 1년	단독주택
2	○		여고 1년	단독주택
3	○		여고 2년	단독주택
4	○		남중 2년	공동주택
5		○	여대 3년 + 여대 1년	공동주택
6		○	여고 1년 + 여중 2년	단독주택
7		○	여중 3년 + 국 1년	공동주택
8		○	대일재수 + 여고3년+중2년	공동주택
9		○	할아버지 + 고 2년	전통한옥

3. 독방이용 사례

3-1. 류 ○라 학생(여고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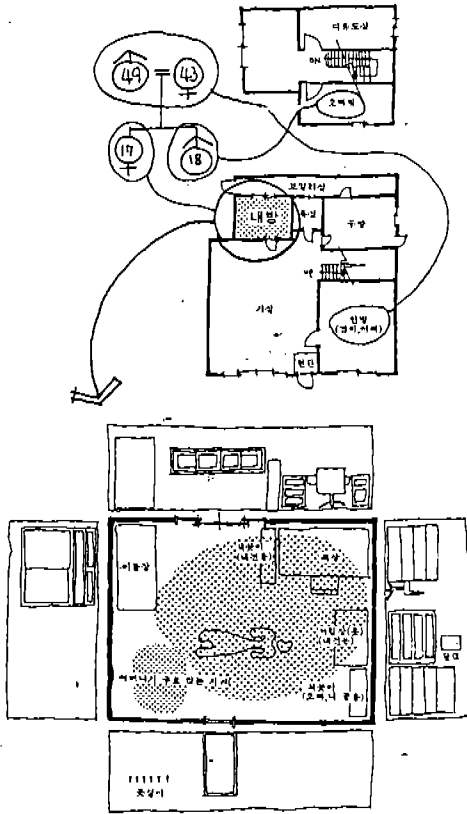
“우리 가족은 아버지(49세, 공무원), 어머니(43세, 주부), 오빠(18세, 고3), 그리고 나(17세, 여고1)이며, 집은 총 방 3개로 구성된 단독주택이다. 나는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집으로 이사오면서 독방을 쓰기 시작했으며, 그 전에는 오빠와 한 방을 이용했다. 우리 집에서는 이방을 ‘0라(내이름)방’이라고 부르며, 나는 ‘내방’이라고 한다. 어릴 때는 이방이 너무 크고 무서워 싫었는데, 지금은 좋다는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방이 좁아서 내가 원하는 가구를 못들여 놓기 때문이다. 가구배치는 내 마음대로 하며, 마루와 연결되는 문쪽에 가구(옷장)를 배치하므로써 어느 정도 ‘마루’의 시끄러운 소리를 막고 있다. 내방에는 나의 가구나 물품 이외 다른 것은 없다. 얼마 전에 오빠가 안보는 책이랑 옷을 좀 보관하자고 하였으나, 복잡하기 때문에 거절하였다. 여름철에는 방문을 항상 열어 놓고 지내며(친구와 함께 있어도 방문을 열어 놓으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는 소리를 아주 줄인다), 대신 방문 앞에는 발을 치는데, 이는 내쪽에서의 요구보다 어머니가 솔선해서 설치하였다.

어머니는 하루에 2, 3번 저녁식사 때 부르러 오거나, 아침에 잠을 깨워주기 위하여 들어오는데, 보통 내 이름을 부르며 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리고 아빠와 오빠는 거의 출입을 하지 않는 편이지만 들어올 때는 노크를 한다. 내 소지품은 식구들이 보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책상 서랍에 그냥 두고 지내며, 옷장도 잠그지는 않고 그냥 닫아둔다. 일기는 거의 매일 쓰는 편이며, 그냥 펼쳐 놓고 쓰는데, 이때 누가 들어와도 특별히 덮는 일은 없다. 방 청소와 이부자리 정리는 주로 내가 한다. 내방이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친구와 함께 집에서 공부하나 일요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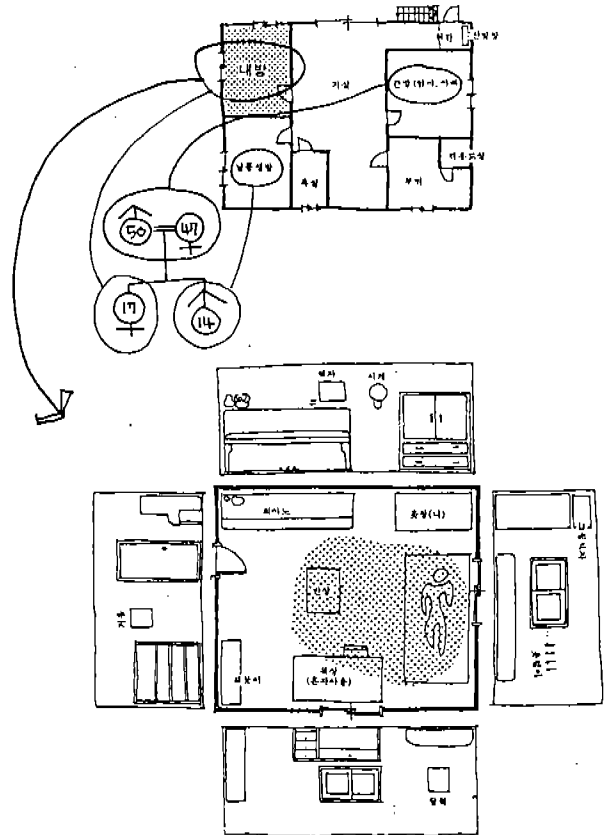
1) 김순경, 김종인, “도시주거 자녀실에서의 프라이버시 행태연구-부모의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지, 3권2호, 1992.12.

는 여러 명이 함께 있으면 공부가 더 잘 되기 때문에 독서실로 간다. 친구는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오는 편이며, 시험기간에는 거의 우리 집(내방)에서 살다시피 하지만 식구들이 없으면 큰방으로 간다. 우리 집은 언제나 개방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친구가 놀러와도 환영한다. 나도 친구를 집에서 만나는 것이 편하다. 우리 집에 손님은 2개월에 한번 정도 오는 편이며, 외사촌 여동생이 오면 같이 잔다. 옆에 누가 함께 자면 혼자 자는 것보다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좋지만, 이불을 함께 덮어야 하는 것은 싫다.”

머니(47세, 주부), 나(17세, 여고1), 그리고 남동생(14세, 중2)로 모두 네 명이다. 집은 방이 3개인 단독주택인데, 큰방에는 엄마와 아빠, 동생은 ‘동생방’, 그리고 나는 ‘내방’에서 잔다. 내가 내방을 혼자 쓰게 된 것은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이다. 그 전에는 남동생과 함께 썼다. 공부는 주로 집에서 하지만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다. 여러 명이 함께 있으면 공부가 더 잘 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마가 잘 보내주지 않는다. 일기는 평소에는 펼쳐놓고 쓰지만 누가 들어오면 덮어버린다. 소지품 보관은 책상서랍 속에 두고, 누가 볼까봐 잠겨 놓는다. 잊어버리고 잠그지 않고 나왔을 때는 불안하다. 방문은 평소에는 출지 않은 한 열어놓고 지내는 편이다. 그러나 일기를 쓰거나 옷을 갈아 입을 때는 닫는



<그림 3-1> 독방이용의 사례(여고 1년)



<그림 3-2> 독방 이용의 사례(여고 1년)

3-2. 정 ○영 학생(여고 1년)

“우리 가족은 아버지(50세, 시청 공무원),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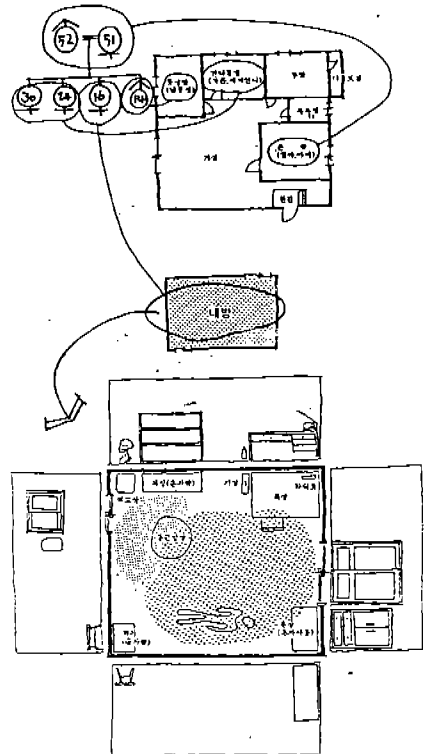
다. 또 음악을 들을 때도 닫는다. 옆 방에 들릴까봐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다. 또한 친구들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도 방문을 닫는다. 친구가 닫자고 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창문을 열어 놓는다. 친구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온다. 그러나 잠그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방의 가구 배치는 아빠와 내가 결정한다. 옷장은 엄마가 가끔 정리 해준다.(옷은 정리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은 반드시 내가 정리 한다. 내가 찾기 쉽도록, 이부자리 정리도 엄마가 해주는 편이다. 식구들은 내방에 불쑥 그냥 들어오는 편인데 이때 나는 짜증을 내며 동생인 경우에는 노크를 요구하나 부모에게는 짜증만 낼 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집은 언제라도 개방되어 있어서 아무때나 친구가 놀러 오려 하면 좋다고 한다. 집에 손님은 엄마 친구 분이나 아빠 친구 분이 주로 오며, 이때 큰방에서 주로 맞이 한다. 그러나 할머니나 친척이 오면 큰방에 할머니가 자고 엄마와 아빠는 '부엌방'에 있는 침대에서 잔다. 전화 받기가 거북스러울 때는 무선 전화기를 이용하여 내방으로 가서 받는다. 형편이 된다면 내 전용 전화가 따로 있으면 한다."

3-3. 이 ○희 학생(여고 2년)

"우리 가족은 아버지(52세, 운수업), 어머니(51세,주부), 큰 언니(30세, 결혼 출가), 둘째 언니(24세), 나(16세, 여고2), 그리고 남동생(14세, 중2)로 모두 일곱 명이나 큰 언니는 결혼을 했기에 지금은 여섯 명 이다. 집은 방이 총 4개인 단독주택이다. '큰방'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언니방'에는 둘째 언니, 세째 언니가, '동생방'에는 남동생이 그리고 나는 '내방'에서 잔다. 원래는 언니와 함께 한방을 쓰고 있었으나 방을 혼자 쓰고 싶어서 아빠를 졸라 결국 지하실을 개조해서 1년 전에 내방을 만들었다. 이방은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방 중앙에 큰상을 띄놓고 지낸다. 또한 지하실이라 낮에도 어두워 불을 켜 놓

아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조용하고, 아무도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좋다. 또한 방을 혼자 쓰니까 잠잘 때 무섭기는 하지만 공부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음악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잠도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어서 꽤 좋다. 언니들과 함께 언니방을 쓸 때는 불을 오래 켜 놓지 못했기에 공부에 지장이 있으며, 잠도 오래자면 혼내 주고, 방청소도 안하면 짜증을 부리곤 해서 싫었다. 또 편지나 일기를 쓸 때도 몹시 불편했다. 그러나 지금은 내방에서 혼자 있으므로 일기를 누가 봐도 가리지 않고 계속 펼쳐 놓고 그냥 쓴다. 물품 보관은 책상서랍 속에 하며 잠그지는 않는다.

이 방을 집에서는 누나방 또는 '0희(내이름)방'이라고 부른다. 이 방에는 동생이 자주 들어오는 편인데 항상 노크를 하고 들어온다.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공부도 같이 하니가 좋다. 그



<그림 3-3> 독방이용의 사례(여고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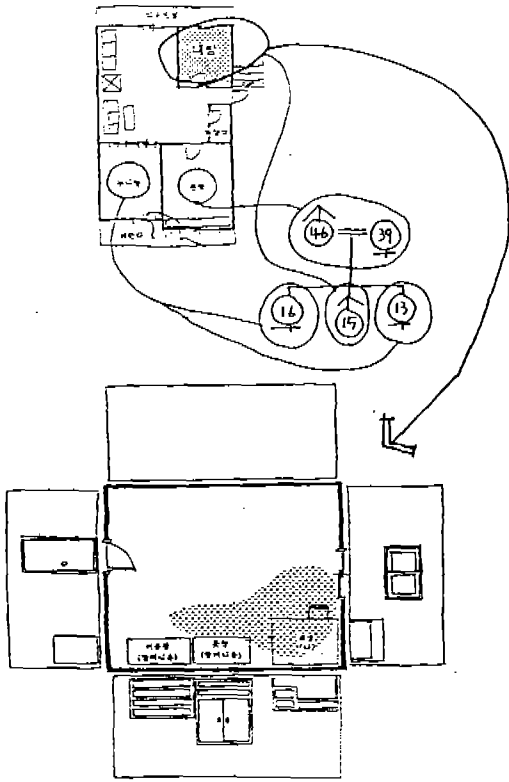
외의 식구들은 거의 출입을 하지 않는다. 방문은 늘 닫아 놓고 있다. 여름철이라도 덥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없을 때 누가 내방에 들어왔다 해도 상관 하지 않는다. 이 방의 물품들은 거의 내것 뿐이며, 내가 정리하는 편인데, 가끔 엄마가 해주기도 하여 나는 고맙게 생각한다. 가구 배치도 거의 나 혼자 결정해서 한다. 음악은 크게 틀어 놓는 편이며, 화가 났을 때는 더욱 크게 틀어 놓는다. 집에 손님이 오더라도 지하실인 내방에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3-4. 김 ○철 학생(중 2년)

“우리 가족은 아버지(46세, 교육공무원), 어머니(39세, 주부), 누나(16세, 중3), 나(15세, 중2) 그리고 여동생(13세, 국6)으로 모두 다섯 명이다. 집은 분양평수 26.7평형인 아파트이며, 방은 총 3개이다. ‘큰방’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작은방’에는 누나와 여동생이, 그리고 나는 ‘내방’에서 잔다. 내가 이방을 독방으로 쓰게 된 것은 3년 전부터 이다. 처음 1개월 동안은 무서워서 밤에도 불을 켜놓고 잤다. 내방에는 할머니 전용의 옷장과 이불장(우리 집에는 할머니가 자주 오는 편이며 이때 내방에서 자고 또한 할머니의 옷과 이불이 모두 내 방에 있다) 그리고 내전용의 책상(및 의자)과 폐기처분할 컴퓨터가 한 대 있다. 내 옷은 주로 큰방의 엄마 옷장 속 내 바구니(3단형 가구)에 보관하며, 이불 또한 ‘엄마방’에서 가져온다. 컴퓨터는 원래 ‘누나방’에 있었는데, 피아노를 샀기 때문에 마땅히 들장소가 없어서 내 방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누나방에 컴퓨터가 있을 때는 컴퓨터 오락을 하기 위해서 자주 들어 갔었다. 그때는 노크 없이 그냥 들어가도 가만히 있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그냥 들어 가면 나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한다. 아마 내 추측에 누나가 사춘기라서 그런 것 같다.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친척 할머니 두 분이 와서 내 방에서 자는데, 이때

나는 방이 좁다는 생각을 들지만 좋다. 내가 내방에서 감추고 싶은 것은 성적표이다. 그러나 이전에 한번 성적표를 감추어 두었다가 아빠에게 들려서 혼이 난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다. 그래서 책상서랍도 그냥 닫아만 두지 잠그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생과 누나는 무슨 비밀이 그렇게도 많은지 꼭꼭 잠그고 다닌다. 또 친구들의 경우에도 책상서랍을 꼭꼭 잠그고 절대로 열어 보여주지 않는데, 나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평소엔 방문은 거의 열어놓고 지내는데, 이는 내방 문이 아빠방 문과 마주보고 있어서 열려있는 아빠방으로 아빠 몰래 쫓겨있는 텔레비전을 가끔씩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아빠에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밤 9시나 10시 정도이면 방문을 닫는다. 이 시간 이후 아빠는 두 번 정도 내방 문을 그냥(불쑥) 열고 들어오는데(공부 감독을 위해서), 이는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살피기 위해서 이며, 이때 잠을 자든지 하다가 들키면 혼이 난다. 그래서 방문을 닫고 있어도 항상 마음은 불안하다. 문을 여닫을 때 무슨 신호같은 것을 내쪽에서 요청한 적은 없다. 그렇게 해도 소용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이 때를 대비하여 옆에 책을 준비하여 두므로 해서 항상 책을 보는 척 한다. 또 라디오도 내가 안 들을 때에는 항상 주과수를 교육방송에 맞추어 놓는다. 노래 등은 헤드 폰을 이용해서 듣는다. 가끔 내가 누나나 동생과 싸웠을 때는 방문을 꼭꼭 잠그고 지낸다.

이 방에는 커튼이 없다. 내가 엄마에게 요구했으나 먼저 난다고 커튼을 설치 해 주지 않지만 나는 엄마가 배란대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신경 쓰여서(특히 공부할 때가 그러한테) 커튼으로 가리고 싶다. 이 방의 가구배치는 엄마 마음대로 한다. 내 의견을 말한 적도 없다. 나에게 물어 왔으면 좋겠는데, 친구는 거의 데리고 오지 않는다. 내방을 보여주기 싫고 또한 누나가 내 친구 오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것 같기 때문



<그림 3-4> 독방이용의 사례(중 2년)

이다.(이것은 불만스런 표정을 짓는 것을 보면 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집 전화번호도 잘 안 가르쳐 준다. 꼭 전화를 해야할 경우(이를테면, 아파트 내의 친구로부터 인터폰이 오거나, 집 밖으로부터 전화가 올 경우 일른 끊고) 나가서 공중전화를 건다. 내방 청소는 내가 하는 편이다. 왜냐하면 내가 없을때 내방을 청소해주는 것은 싫고, 물건이 없어지거나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없어진 물건을 찾는 데 한 시간 이상 걸린 적도 있다."

4. 공용(복수인에 의한)의 사례

4-1. 김 ○희 학생(여대 3년 + 여대 1년)

"우리 가족은 어머니(47세, 주부), 큰언니(24세), 나(22세, 대3), 여동생(19세, 대1), 여동생(16

세, 고3) 그리고 막내인 남동생(13세, 중1)으로 모두 여섯 식구이다. 이 가운데 나는 둘째이며, 바로 위의 언니는 대학시절부터 취직이 된 지금까지도 서울에 있으므로, 현재 이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식구는 모두 다섯 명이다. 우리 집은 아파트로서 분양평수는 28.7평형으로 방은 총 3개이다. 식구들의 방 배정은 '안방'은 어머니와 여동생이 '작은방'은 남동생이, 그리고 '중간방'을 나와 바로 밑 여동생이 함께 쓰고 있다. 이방의 크기는 큰방과 작은방의 중간 정도이며, 방의 문은 베니어 합판문(플레쉬 도어)로 되어 있다. 이방의 위치는 우리집에서 가장 북쪽에 있으며, 바로 옆 방이 '엄마방'이며, 내 방문을 열고 나오면 부엌겸 식당이다. 이방을 내가 동생과 함께 쓰게 된 것은 이사오던 '91년부터이며 그 전에는 방 4개 있는 단독주택이었으므로 나 혼자 독방을 이용하였다. 집에서는 내 방을 '언니방'이라 부른다. 방을 함께 쓰고 있는 여동생의 경우도 평소에는 언니방이라 하지만 친구들에게는 이 방을 '자기방(내방)'이라 소개한다. 이 방의 가구는 내 전용의 1인용 침대와 책상(및 의자), 동생의 책상(및 의자)가 있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책상이 1개 있는데, 책상은 칸으로 각자의 공간을 구분하여 쓴다. 내 방에서의 '내자리'는 각자의 잠자리(나는 주로 침대에서, 동생은 방바닥에서)와 공부자리를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내 책상은 동생 책상의 1.5배 정도로 크기 때문에 내 자리가 훨씬 크며 동생은 침대 옆 한쪽 모퉁이에 비록 공간은 좁지만 나와 서로 등지는 방향으로 책상을 배치하로서 해서 각자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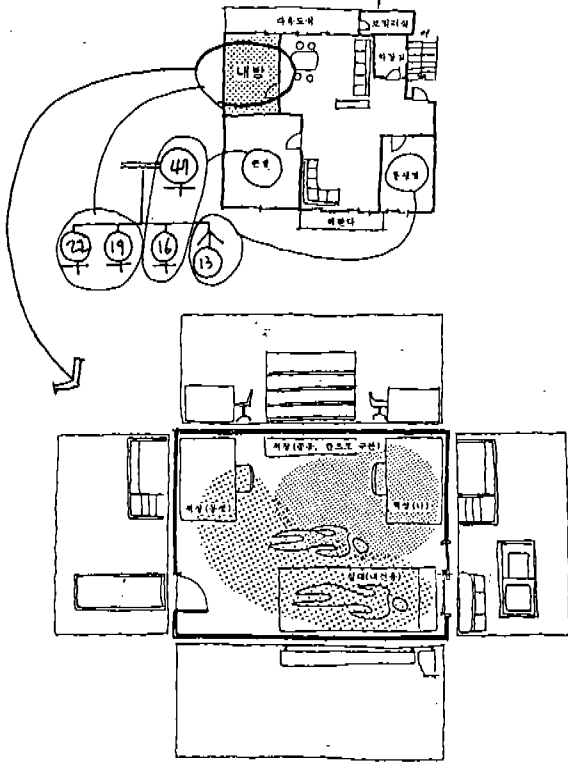
내가 이 방을 이용하는 시간은 주로 밤시간에 잠을 자는 경우이다. 왜냐하면 옆에 동생이 있어서 나의 사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기나 편지등을 학교에서 쓰는 경우가 허다 하며, 집에서는 동생이 잠들고 난 후에나 가능하다. 나는 소지품을 평소 책가방속에 넣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집에다 두고 열쇠로 잠글 수 있는 책상 서랍이 있기는 하지만, 웬지

열쇠로 잠그고 다니는 것이 마치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듯 동생이 자칫 오해할 것 같아, 내키지 않아 무엇을 열쇠로 잠그는 일은 거의 없다. 내 방에서 각자의 자리는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만큼 벽면의 이용도 나와 동생의 영역이 뚜렷이 구분된다. 내자리에는 내가 주로 이용하는 달력과 시가 있는 그림을, 동생자리에는 동생 전용의 달력을 포함하여 예쁜 강아지 그림 등

출입제한과 내 생활의 노출을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2. 정 ○경 학생(여고1년+여중 2년)

“우리 가족은 할머니(64세), 아버지(46세, 화랑경영), 어머니(42세, 주부), 언니(18세, 대입재수중), 나(17세, 여고1) 그리고 동생(14세, 여중2) 모두 여섯 명이다. 나는 방을 동생이랑 공동으로 쓰고 있는데, 집에서 이 방을 내 이름을 붙인 ‘0영(내이름)이방’ 또는 동생 이름을 따라 ‘0영(동생이름)이방’이라 하며, 나는 ‘내방’이라고 하며 동생 역시 이 방을 ‘자기방’이라고 한다. 방을 같이 쓰므로 해서 좋은 점은 이야기 상대가 있어서 좋고, 불편한 점은 친구들을 마음대로 데리고 올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방을 동생과 함께 쓰게 된 것은 ‘92년 10월에 이집으로 이사온 이후이며, 그 전에는 동생이랑 언니랑 세명이 한 방을 같이 이용했다. 이방은 비교적 큰 편이며(너무 크기 때문에 동생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에는 음악을 틀거나 이것 저것 만들어서 방을 꾸며 놓았다), 방안에는 책상 2개와 옷장(공용),그리고 책장(공용)이 있고 이불은 옆방인 언니 방에서 가져온다. ‘우리방’의 위치는 아래 층의 ‘부모방’과 ‘할머니방’과는 분리하여 2층에 있으며, 바로 옆에는 ‘언니방’이 있고 이방과의 사이에 문이 나 있어서 내 방 출입은 언니 방을 통해서 한다. 별도의 내 방 출입문이 있으나, 먼지 등이 들어올 수 없도록 폐쇄하여 두고 있다. 언니 방을 통한 출입에 평소에는 별 불편한 줄을 모르고 그래서 항상 사이문을 열어 놓고 지내는 편이지만 언니랑 싸웠다거나 할 때는 닫아놓고 지내지만 출입시 몹시 불편하다. 또 언니(재수 중)의 과외 선생님이 오셨을 때는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방문을 닫고 소리 없이 책을 읽거나 할머니방에 내려가 있다. 이방에서 각자의 자리는 비교적 정해져 있는 편인데, 만약 동생이 내 자리에 앉거나 동생의 물건을 내 자리에 놓아두면 화를 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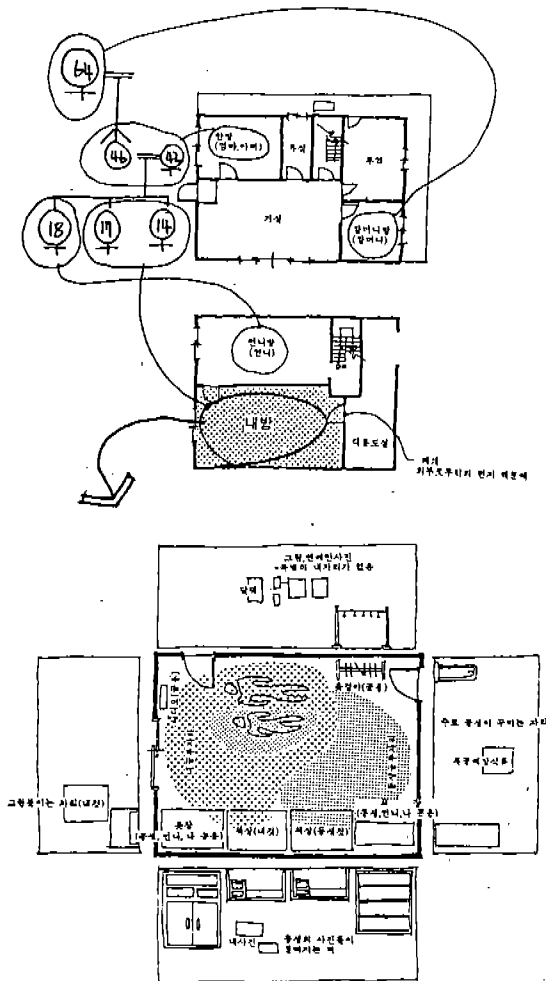
<그림 4-1> 공용(동생 2일, 여대 3년+여대 1년)의 사례 동생이 좋아하는 것들로 장식되어 있다. 식구들의 내 방 출입을 보면 어머니는 나의 이름을 부르거나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편이지만 동생들은 아무런 기척도 없이 그냥 불쑥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편이다. 이 때문에 남동생에게는 ‘노크좀 해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여동생에게는 가끔 속이 상하더라도 태연한 척 한다. 내 방의 방문은 나 혼자 있을 때에는 여름철에도 거의 닫아놓고 지내는 편인데, 그 이유는 식구들의

던져 버리며, 잠잘 때에도 내 자리를 침범한다면, 발로 차거나 하면서 화를 낸다. 나의 중요 소지품은 책상의 가운데 서랍 속에 넣어 두고 평소에 항상 잠그고 다니며,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한다.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적은 대목이 많기 때문이다. 그 이외의 서랍은 동생 이랑 엄마가 열어봐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두고 지낸다. 부모는 이방에 하루에 2, 3번 출입하시는 편인데 주된 이유는 공부하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 오거나, 전화를 바꿔줄 때 또는 빨래를 정리할 때이다. 이때 문은 대개 이름을 부르

며 열거나 때로는 아무런 인기척 없이 불쑥 그냥 들어오시기도 하여 당황할 때도 있으나 아무 말도 하지는 않는다. 우리 집에는 손님이 자주 오는 편이나 손님에게 내 방을 내어준 적은 한번도 없다. 친척 아이들이 가끔 놀러오는 경우가 있으나 나는 대개 이 때 내 물건을 책상서랍 속에 넣고 잠그거나 옷장 속에 넣고 잠그어버린다. 실제로 물품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고, 또 친척아이들이 이것 저것 내물품을 만지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내 방에는 내 전용의 전화를 아빠가 따로 마련해 주셨는데 상당히 편리하기는 하다. 그러나 내가 부모라면 아이들방에 전화를 따로 놓아주지 않을 것 같다. 통화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이다.”

4-3. 강 ○아 씨 가정(여국 3년 +국 1년)

“우리 가족은 남편(37세, 제약회사), 나(35세, 주부), 큰애(여 9세 국3), 막내(남, 7세) 네 식구로 구성되며, 남편은 제약회사에 근무하고, 나는 부업으로 아기 돌보는 일과 함께 집안(아이들방)에서 그릇 종류를 두고 판매하고 있다.(아파트에는 우리집에서 그릇 종류를 팔고 있다는 광고문을 붙여 놓았다) 집은 분양평수 26평형 아파트로서, 방은 3개인데 그중 방 하나는 세를 놓고 있다. ‘안방’은 남편과 내가 쓰고 있으며, ‘애들방’은 큰애와 막내가 함께 쓰도록 일러 주고 있지만, 막내는 이 방에서 잠을 잘 자려 하지 않아서 낮동안은 이 방에서 놀기도 하고 낮잠을 자기도 하지만, 밤이 되면 꼭 나와 함께 자려한다. 그러나 큰애는 낮동안은 이방 저방 구분없이 지내다가 잠 잘 때는 반드시 제 방에 와서 잔다. 나는 아이들의 잠만은 어려서부터 부모와 분리시켜 재우고 싶었기 때문에 따로 재우려고 노력은 하지만 막내가 부모와 떨어져 자는 것을 극력 싫어하고, 혹 누나와 함께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부모방 앞에 와서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기에 하는 수 없이 데리고 잘 때가



<그림 4-2> 공용(동성 2일, 여고 1년 + 여중 2년)의 사례

많다. 이에 대해 남편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나, 나는 빨리 독립 시키고 싶으며 방을 따로 내어줄 형편만 된다면 더 일찍(약 5세)부터라도 내어 줄 생각이었다. 지금의 계획으로는 앞으로 1년후, 늦어도 3년후까지는 방을 따로 하나 더 만들어 줄 계획이다.

아이들방에는 판매용 그릇을 전시하는데, 필요한 낮은 장과 내가 전용하는 화장대를 한쪽 벽면에 두고 쓰고 있으며, 아이들 전용의 가구나 물품은 없다. 큰아이의 책상은 안방에 두고 쓰게 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들방에는 책상을 둘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이며, 큰아이가 책상을 사용하는 시간은 주로 낮이며 밤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책상을 이용하는데 따른 불편함은 별로 없다. 이방의 출입문은 유리문으로 되어서 필요에 따라 뚫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 요즘(8월)같은 여름철에는 거의 폐어 놓고 지내지만 시어른이 오신다거나 하면 주무시게 방문을 닫아드린다. 그러나, 안방문은 평소에 활짝 열어놓고 지내지는 못하는데, 이는 옆방에 세든 학생이 있어서 그러하며 요즘같이 더위도 꼭 닫아놓고 지내야 하는데, 그 학생 역시 항상 꼭 닫고 지낸다.

내가 아이들방 출입하는 경우는 낮동안 물건 판매를 위해서 내가 이 방에 자주 들어 오는 경우이며, 이 때 애들은 밖으러 놀러 보내거나 혹은 집안의 다른 방으로 잠시 가게 한다. 아이들은 방 하나를 세놓기 전에는 그 방을 함께 쓰도록 하고 현재의 애들방은 비워두고 지냈는데, 그때 큰애가 '자기방'에 쪽지('내 물건에 손대지 마시오', '이 방에 들어 올 때는 노크를 하세요')를 붙여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이 아이도 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나도 아이들방에 들어 갈 때는 노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마음뿐이고 아직 실행으로 옮겨본 적은 한번도 없다. 그러나 한편, 아이들의 경우는 우리방에 들어오고 싶으면(특히 우리 부부가 함께 있는 밤 시간인 경우) 큰애는 노크를 하고 막내는 문 앞에 와서 훌쩍

거리며 온다."

4-4. 박 ○수 학생(대입 재수생+여고 3년+중 3년)

"우리 가족은 아버지(54세, 은행 지점장)는, 어머니(50세, 주부)를 포함하여 큰누나(22세, 대3), 둘째누나(21세, 대2), 세째누나(19세, 대입재수중), 네째누나(18세, 고3) 그리고 나(15세, 중3) 모두 일곱 명이다. 우리 집은 분양평수 45평형의 아파트로써 방은 총 4개 이다. '큰방'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나방'에는 큰 누나와 둘째 누나가 함께 쓰고 있고, 나는 세째 누나와 네째 누나와 함께 '침대방'을 쓰고 있다. 이 방은 큰방과 마주보는 위치에 있으나 출입문이 서로 어긋나게 되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국민학교 2학년때부터 부엌 옆방을 '내방'으로 쓰고 있었는데, 누나들의 옷이 계속 늘어나면서 철 지나간 옷들을 그 방에 두게 되어 누나와 함께 현재의 이 방을 쓰게 되었다. 이전의 내방은 비단 누나들의 옷이 아니더라도 좁고 창문이 없어서 답답했으며, 여기에 누나들의 옷장까지 들어가게 되어 더욱 답답하던 중학교 2학년인 지난 해부터 지금의 이 침대방으로 옮겨 누나들과 함께 쓰고 있다. 원래 이방은 세째 누나와 네째 누나가 함께 쓰고 있었으므로 방의 주인은 '세째 누나인 셈'이다. 그러나 내 친구들이 오면 이 방을 '내방'이라고 소개하며 이 방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 방을 '자기들 방'이라고 하기는 누나들도 마찬가지다. 이 방에서 각자의 '내자리'는 공부자리인 경우 나는 내책상을 중심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누나들은 공부자리가 따로 없고, 레포트를 쓰거나 시험기간에는 나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 책상을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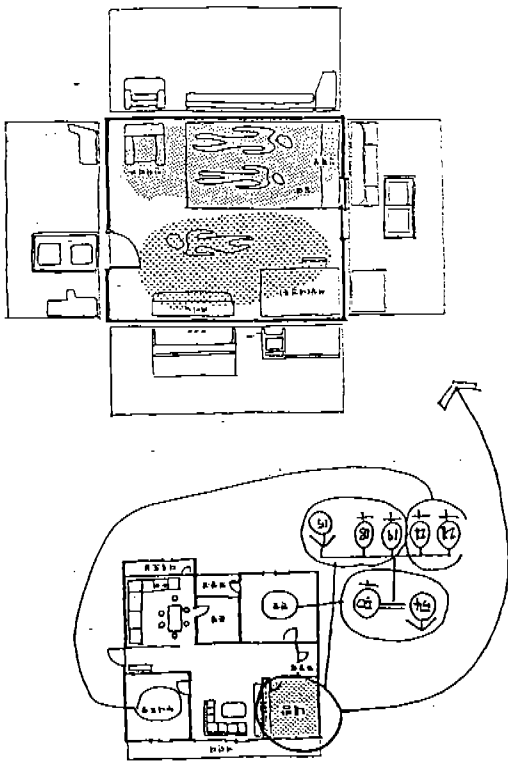
잠은 방바닥에서 자므로 방바닥은 모두 '내 것'이며 누나들은 침대에서 자므로 바닥에 앉아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이는 잠을 자는 시간의에는 거의 이 방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저녁 8시~10시 30분 사이에는 나의 공부하는

시간으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내방에 들어오지 않는다. 나의 소지품들은 대개 책상서랍에 보관하는 편이지만 잠그지는 않아서 누나들이 가끔씩 열어보는 것 같다. 그러나 나도 내 책상의 누나 서랍을 뒤져 보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러나 일기장은 사람들의 손이 잘 닿지 않는 나만이 아는 곳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평소에 내방의 문은 거의 닫아두고 있으며, 아주 더운 여름철에는 바람만 통할 정도로 살짝 열어놓고 지내지만 친구와 같이 있을 때에는 더워도 방문을 꼭 닫고 지낸다. 부모의 내방 출입은 거의 없는 편이며, 다른 누나들의 내방 출입도 '완전 자유'이며, 노크 등은 전혀 하지 않는다. 때때로 내가 쉬고 싶을 때 쟁그린다거나 해서 누나들의 자유분방한 출입을 통제하는 수도 있지만 누나들 편에서 눈치를 못채면 그냥 참는

다. 방을 누나들과 함께 쓰므로 해서 좋은 점은 혼자서 독방을 이용할 때는 심심했는데 누나들과 함께 있으므로 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점이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옷을 갈아 입을 때와 누나들이 '남자들의 세계'를 이해 못 해줄 때 등이다."

4-5. 박 ○은 학생(할아버지+고 2년)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67세), 할머니(70세), 아버지(47세, 교육공무원), 어머니(42세, 주부), 누나(19세), 나(17세, 고2), 여동생(16세, 중3), 여동생(14세, 중2), 그리고 남동생(10세, 국5)로 모두 아홉 명이다. 우리 집은 대구 근교에 위치한 전통 한옥으로 안채와 사랑채가 있고, 안채의 '큰방'에는 할머니와 아버지, '작은방'에는 어머니와 여동생들(두명)과 남동생이 함께 쓰고 있다.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겨울철(난방관계 상)에는 사랑채에 있는 뒷방을 쓰고 있다. 내가 이 방을 할아버지와 함께(겨울철) 쓰게 된 것은 첫째, 할머니가 이제는 국민학교도 졸업해서 다 컸으니 '여식아들'하고는 함께 잠을 잘 수가 없고, 둘째 할아버지가 적적해 할테니 함께 자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한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5년간 나는 이 방을 할아버지와 함께 쓰고 있기는 하지만 나로서는 불편한 점도 있어서 여름철이 되면 빈방인 사랑채의 '건넌방'을 즐겨쓰는 편이다. 나도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안채의 작은방에서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남동생들과 함께 지냈다. 방안에는 출입문과 내 책상이 있는 그 부분만을 제외하고 네 벽과 그 쪽 방바닥에는 모두 할아버지 물품들이 보따리 보따리 가득하며, 내 물품이라고는 작은 책상과 책 그리고 책상이 있는 쪽 벽면에 걸어두는 교복 뿐이다. 이 방에는 할아버지가 항상 요를 갈아놓고 있기 때문에 '내자리'는 비교적 잘 구분되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내자리인 방바닥으로 내려오는 일이 있어서 나는 발로차고 하면서(농담관계, joking) 할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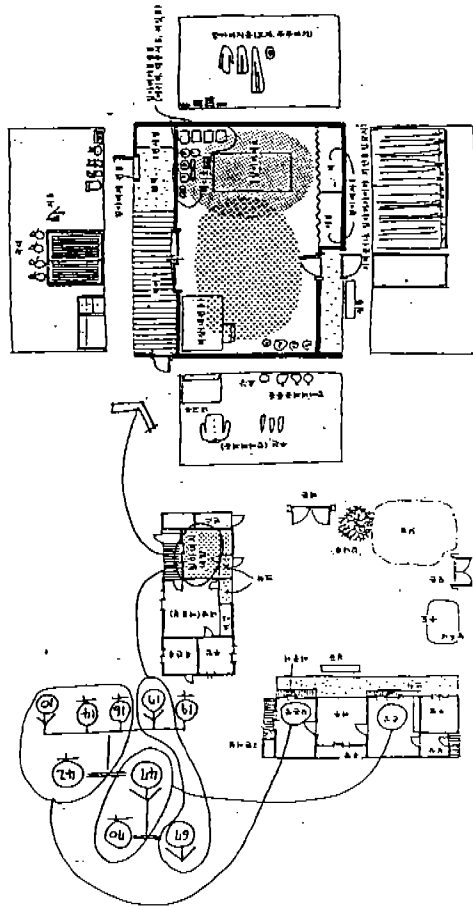


<그림 4-3> 공용(이성 3인, 대입재수+여고 3년+준3년)의 사례

요 위로 올라가라고 한적이 있다. 이때 할아버지는 장난기 섞인 반응을 보이면서 마지못해 저주는 척 한다. 한편 나도 짐짓 할아버지 자리가 탐이나서 할아버지가 없을 때 요위로 올라가서 텅굴어 보고 하다가 할아버지가 들어올 때 쫓아서 구겨진 요를 원래대로 반듯이 펴 보려 하지만 표시가 나는 일이 많아서 가끔 혼이 난다.

한편, 우리는 각자의 소지품을 따로따로 보관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가끔 내가 없을때 내 책상을 뒤지는 것 같고(그것은 돌아와 보면 자

리가 바뀐 물품을 보면 알 수 있다.) 나역시 할아버지가 없을 때는 할아버지 물품을 이 봉지 저 봉지 뒤져보면서 무엇 무엇이 들어있나 궁금해 하는데, 이 또한 쉽게 들어가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혼이 나기도 하여 서로가 상대방의 물품 뒤져보는 것이 마치 전생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불만한 것은 아예 태워 버리거나 없애 버리며, 일기장 같은 것은 책장의 안쪽 빈 공간에 깊이 감추어 둔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얼마 전에는 책상서랍 1개에 자물쇠를 달아 그곳에 중요한 것을 보관하고 있다. 이 방에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오는 일은 절대로 없다. 혹 불 일이 있으면 밖에서 나를 불러낸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식구들도 거의 이 방에는 출입을 하지 않으므로 이 방은 '나의 천국'이나 다름없다. 일종의 '도피처인 셈'이다. 방문은 거의 안으로 잠궤 놓고 지내는 편인데, 그것은 남(가족)이 들어오는 것이 싫고 비밀스럽게 있고 싶기 때문이다. 이는 문이 바람에 저절로 열리기도 하고, 할머니가 가끔 아무런 인척 없이 방문을 활짝 열 때도 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이 방에 들어올 때는 헛기침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으며, 다만 내가 발자욱 소리로 짐작을 할 뿐이다. 나역시 그냥 불쑥 문을 여는데, 한집에서 노크나 신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방을 내방이라고 생각해 본적은 없다. 그래서 겨울에는 그저 방에서 잠만 자는 정도이며, 일기 쓰거나 편지 쓰기 등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저 여름이 오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으며, 겨울 동안에는 아예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지낸다."



<그림 4-4> 공용(동성 2인, 할아버지+고2)의 사례

1) 김광익 외, 문화 인류학, 한국방송통신대학, 1983, p.51.

5. 결 론

조사대상의 사회적인 계층은 중류(중상, 중중, 중하)에 속하며, 가족구조면에서는 가족수가 4~9명이고, 가족유형은 아홉 예중 두 예는 3대

의 확대가족이며, 일곱 예는 2대의 핵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환경면에서는 방 수가 3개~4개, 평수는 단독주택 43평~63평, 아파트 26평형~45평형이다.

이들 대상의 대체적인 경향을 보면, 독방 이용의 경우는 자녀들이 보다 개방적으로 친구의 방문을 환영하는 가정환경에 해당하며, 자녀실의 독립성이나 프라이버시 또한 비교적 높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가족유형면에서 핵가족에 해당하므로 해서 가족수가 확대가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데도 기인하는 것이며, 부모의 자녀실 인지도 또한 높아 어떤 형태로든 간여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나, 자녀실 출입하는 빈도가 낮은 면에서나, 방문을 열때에 반드시 노크를 하거나 이름을 부르는 등 붙속 여는 경우가 잘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간여가 되는 물품을 들여 놓지 않는 경향 또한 그러하다. 이에 비하여 공용의 경우는 보다 폐쇄적이며, 소지품보관 면에서도 신경을 쓰는 편이고 친구들의 방문 또한 비교적 꺼리는 편이다.

한편, 가족성원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커뮤니케이션)면에서는 독방이용보다는 공용의 경우가 (다시 말해서 핵가족의 경우보다는 확대가족의 경우) 더욱 빈번하나, 가족외의 친구를 통한 집안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이와는 반대의 현상을 보인다. 그리하여 독방을 이용하는 자녀들은 혼자서 방을 지키는 프라이버시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한편, 친구를 그리워하는 경향이 높고, 공용의 경우는 그러한 현상

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또 손자녀의 입장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같이 있는 확대가족의 경우, 방 이용면에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다시 말해서 핵가족에서는 방을 비워야 하는 경우 부모방으로 가지만, 조부모가 있는 경우는 조부모의 방으로 가거나 아예 조부모와 함께 방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순경·김종인: “프라이버시적 상황의 해석 - 주거공간에서의 수행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계명대 산업기술연구소 논문보고집.13-2 집,1990.
- 2) 김순경·김종인: “‘나 - 남’의 상황논리에서 본 프라이버시의 한국적 이해,” 한국주거학회지. 2권 1호. 1991년 6월
- 3) 김순경·김종인: “부모의 출입행태면에서 본 주거유형별 자녀실의 프라이버시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9권 제10호. 1991년 10월.
- 4) 北捕 かほる & Roger A. Hart 他: “子供の個室保有が自立の發達と家族生活に及ぼす影響(1)-(3)” -일본에서의 연구결과 중심 -, 日本建築學會學術講演梗概集,1987
- 5) 富堅鎮: “住生活におけるプライバシー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 日本建築學會 研究年保,1972.
- 6) Altman, I: “Privacy Regulation: Culturally Universal or Culturally Specific?”, *J. of Social Issues*, Vol.33. 1977.